

2016년 12월 14일, 표선면 가시리 한신화씨 댁, 송정희 조사.
한신화(여, 1921년생, 표선면 가시리)

[제보자] 나 골아난 말이 홀아방이 하나가 살안. 오막살이 해연 사난 저 거짓말을 잘헤영 거짓말을 잘헤연

“저레 송아지 막아줍서.”

헛이민 헛 건디 송아지가 나오란 비들락 비들락허게 저레 돌으난 그 하르방보고

“그 송아지 소리헛서.”

경 허난 이젠 그 하르방은 송아기 소리헛센 허난

“멍.”

헛 기라. (웃음) 송아기 막아줍서. 허주만은 송아기 그 송아기 소리헛서. 멍 영 허난

“옛 하르방도 예 송아기 그거 막아주주 원.”

“저 사름 그 송아기 막아줍서 헛이민 허주만, 송아기 소리헛서. 허난 나 멍 헛 주게.” (웃음)

경 헛 도레가 잇어이.

경허난 헛나 사름은, 거짓말은 하르방이 경 잘 헤영그네 옛날엔 불 솜단 내비 동 저 궤기 사다그넵에 어디 일허는 디 정심반찬 행 가주게. 거난, 불 솜다네 나 오란

“원 궤기장시가 오람직헌디 원 궤기장시가 아니 오란 원.”

“메, 궤기 사젠?”

“예게.”

“마 굿사마 영 헤영 마 궤기장시 간 게.”

게난, 이젠 불 꺼동 궤기장시를 좇이난 좇아져, 좇지 못헛

“저 하르방은 거짓말을 잘헤영.”

“아 나?라 거짓말만 헤렌 허는 거게 거짓말 아니허여게.”

경 헛 하르방이 잇어. (웃음)

- 핵심어 : 하르방, 거짓말, 송아기, 궤기장시, 불